

尤怡의 『金匱要略心典』과 『金匱翼』에 나타난 消渴에 대한 考察

李仙蘭·李主惠·許琪會·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尤怡治療消渴學術思想探析

(以『金匱要略心典』和『金匱翼』爲中心)

李仙蘭·李主惠·許琪會·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教室

糖尿病屬於韓醫學之消渴病範疇。目前糖尿病正肆虐全球，成爲國家嚴重的社會公共衛生問題。韓醫學對消渴的研究已有數千年歷史，本文通過考察尤怡所著的『金匱要略心典』和『金匱翼』，研究善長臟腑辨證且善用經方的尤怡論治消渴的學術思想。得出如下結論：認爲消渴病機爲虛勞內熱，分爲太陰，厥陰，陽明，少陰4個類型，對各類型明確臟腑歸屬。其中對厥陰的論述，闡明肝與消渴病有着重要的關係。辨證方面，分爲消渴，消中，腎消 三個類型，其症狀基本與現代醫學所論述的糖尿病三多症狀基本一致。治療方面，闡明了腎氣丸作爲溫補之劑使用到因虛熱產生的消渴病治療的原因，指出腎中陽氣與上中二焦心肺脾胃的關係，及腎氣丸中附子，桂枝的用意所在。兼證方面，記載治療癰疽和浮腫兩個方劑。禁忌方面，記錄飲酒，房室，咸食及麵等三種。不足點，缺乏對消渴病因的論述，治法缺乏多樣性，且對兼證(相當於糖尿病合併症)僅記錄兩個方劑。

關鍵詞：尤怡，『金匱要略心典』，『金匱翼』，消渴

I. 緒論

尤怡는 출생년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1749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清代 江蘇省 長州(지금의 蘇州市)사람이다. 字는 '在涇'인데 '在京'이라고도 하며, 號는 拙吾이고 別

號는 飼鶴山人이다.¹⁾ 大略 徐靈胎와 같은 시대 사람이었으며, 학문은 喻嘉言을 추종했다. 그의 著書로는 『傷寒貫珠集』 8권, 『金匱要略心典』 3권, 『金匱翼』 8권, 『續記』 1권, 『醫學讀書記』 3권, 『靜香樓醫案』 2권이 있다.²⁾ 그중에

* 교신저자 : 이용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한의과 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bl@mail.sangji.ac.kr Tel : 033-730-0668

1) 裘沛然 等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602쪽, 중국

2) 안연주 등, 尤怡學術思想探討, 『光明中醫雜誌』 1996년 제 6기 3쪽, 중국

서 『傷寒貫珠集』, 『金匱要略心典』, 『金匱翼』은 모두 張仲景의 의학적 취지를 잘 이어받은 우수한 著作으로서 후세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3대 질병중의 하나로 불리우고 있는 糖尿病은 한의학에서 消渴의 범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내린 바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3~5%의 發病率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³⁾ 현재 세계에는 1.2억이나 되는 사람이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인구의 5%를 넘어서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⁴⁾ 특히 糖尿病의 합병증은 아주 높은 致死率을 가지고 있어 거의 당뇨병사망율의 70%를 차지한다. 한의학은 消渴에 대하여 數千年의 연구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現代醫學에 비하여 辨證分型하여 標本兼治하고 合理적으로 약을 사용하며, 副作用이 적은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⁵⁾

이에 筆者는 한의학에서 消渴연구의 역사를 고찰해 보고, 그 중 최초로 消渴病에 대하여 辨證論治를 진행한 『金匱要略』의 註釋書중에서 臟腑辨證에 능한 尤怡의 『金匱要略心典』과 『金匱要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雜病내용을 보충한 저서 『金匱翼』을 통하여 尤怡의 消渴이론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 그 이론이 消渴研究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消渴研究의 歷史⁶⁾

- 3)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 2002년, 1-2쪽, 중국
- 4) 삼성서울병원 당뇨병교육팀 위음, 『알기 쉽게 풀이한 당뇨병』, 태웅출판사, 2004년, 3쪽, 한국
- 5)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 2002년, 197쪽, 중국
- 6)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① 消渴이라는 이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素問·奇病論』으로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轉爲消渴”이라고 적혀있다. 消渴이라는 病名외에 『內經』에서는 消癯이라는 病名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⁷⁾

② 西漢시기의 淳于意의 書籍중에 ‘消癯’에 한 醫案 기재하였는데 이는 消渴病에 대한 가장 최초로 기록된 醫案이다.

③ 그 후 張仲景이 『金匱要略』에서 최초로 消渴病이라는 篇名을 만들어 消渴病의 辨證論治에 대하여 비교적 系統的으로 論述하였다. 『金匱要略方論』에서 “消渴”, “渴欲飲水”, “其人若渴”라고 적힌 조문은 모두 17개이고 처방은 6개가 있다. 消渴에 대하여 혹은 病證, 혹은 症狀(渴欲飲水)으로 논하였다.⁸⁾

④ 隋代의 巢元方은 『諸病源候論·消渴病諸候』에서는 消渴病을 消渴候, 渴病候, 渴候虛乏候, 渴利候, 渴利候損候, 渴利候發瘡候, 內消候, 強中候등 8가지 類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발병원인은 五石散을 복용한 것과 有關하다고 보고 下焦虛熱, 腎燥陰虧가 발병원인이라고 보아 消渴病의 病因病理를 보충하였다. 巢氏는 또한 消渴病이 癰疽와 水腫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認識하였다.⁹⁾

⑤ 唐代에 와서는 消渴病에 대한 인식이 아주 크게 발전하였는데, 孫思邈는 『千金要方·消渴』에서 消渴은 勞欲過度 및 오랜 飲酒와 有關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小便多於所飲”의 기전에 대하여 內熱消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飲食을 조절 할 것을 강조하고 치료의 우선 순위에 놓았다. 책에는 또 消渴病을 치료하는 처방 52첩이 적혀있고 그중에는 天花粉,

도, 563-564쪽, 중국

7) 單書健 等主編, 『古今名醫臨證金鑑 消渴卷』,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쪽, 중국

8) 尤怡 著, 『金匱翼』,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쪽, 중국

9)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565쪽, 중국

麥門冬, 생지황, 黃蓮 등生津之品이 많았다.¹⁰⁾

⑥ 王澐는 『外臺秘要·消渴消中門』에서 제일 먼저 消渴病의 소변이 달다는 症候에 대하여 記載하였는데, 주로 腎虛와 有關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消渴은 사실상 지금 말하고 있는 糖尿病인 것이다. 책에는 消渴病을 치료하는 처방 47개와 98가지 약물이 記載되어 있다.¹¹⁾

⑦ 宋代 王懷隱등이 저술한 『太平聖惠方』에 “三消論” 1권이 있는데 최초로 “三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책에서는 消渴病의 여러 가지 症候表現 및 합병증에 따라 14가지로 나누어서 치료하였는데 177가지 처방이 있고 常用藥物으로는 人蔘, 天花粉, 黃蓮, 麥門冬, 知母, 地黃 등이 있다.¹²⁾

⑧ 金元時期에 劉河間은 三消理論을 더욱 발전시켜 『三消論』을 저술하고, 燥熱學說을 주장하고 처방으로는 清熱泄火, 養陰生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논술했다. 白虎湯, 承氣湯과 같은 처방을 떠받들면서 宣明黃芪湯을 창방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張子和와 李東垣의 讚揚을 받았다.¹³⁾ 朱丹溪는 劉河間의 三消理論을 더욱더 발전시켜 『丹溪心法, 消渴』에서 消渴病을 치료할 때 마땅히 “養肺, 降火, 生血爲主”라고 하였다.¹⁴⁾

⑨ 明代에 와서는 消渴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치료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데 있었다. 戴元禮는 『證治要決·消渴』에서 “三消得之氣之實, 血之虛, 久久不治, 氣盡虛則無能爲力矣”라고 하면서 黃芪飲(黃芪, 甘草)加減처방을 사용하였고 益氣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¹⁵⁾

⑩ 趙獻可는 三消腎虛學說을 주장하면서 마

땅히 治腎이 근본이라고 보았다. 張景岳, 喻家言도 治腎學說을 지지하였다.¹⁶⁾

⑪ 周慎齋는 마땅히 調養脾胃가 위주라고 강조하면서 麥苓白朮散을 사용하였다.

⑫ 清代에 와서 消渴病에 대하여 더한층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消渴病의 발병기전에 대하여 黃坤載, 鄭欽安 등은 消渴病의 원인은 肝에 있다고 보았다.

⑬ 葉天士등은 오래된 정신자극으로 인하여 氣鬱하면 化火하여 肺胃의 陰液과 津液을 消燥하므로 消渴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張錫純은 “消渴之證, 多由於元氣不昇”이라고 보아 『醫學衷中參西彙』에서 “玉液湯”을 창방하여 昇舉元氣의 처방으로 消渴病을 치료하였다.¹⁷⁾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바 消渴病은 그 이론이 『內經』에서 시작되고, 辨證論治는 『金匱要略』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證候分類는 『巢氏病源候論』에서 시작되었고, 體系는 唐宋 시기에 형성되었다.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¹⁸⁾

(1) 病因

- ① 先天稟賦不足, 臟氣虛弱
- ② 飲食不節, 積熱傷津
- ③ 情志失調, 鬱火傷陰
- ④ 勞欲過度, 腎精虧損
- ⑤ 溫燥藥物服用過多

(2) 病機

- ① 陰虛爲本, 燥熱爲標
- ② 氣虛爲本, 血瘀爲標
- ③ 氣陰兩傷, 陰陽俱虛

(3) 治療

10)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도, 565쪽, 중국
 11)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5쪽, 중국
 12)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6쪽, 중국
 13)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7쪽, 중국
 14)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7쪽, 중국
 15) 石鶴峰 等著, 消渴病病機證治源流探微, 中醫研究, 2004년 6월 제17권, 封四

16)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8쪽, 중국
 17) 張伯輿 主編, 전게서, 568쪽, 중국
 18)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 2002년, 3-7쪽, 중국

- ① 腎을 重點으로 하여 治療
- ② 脾胃로부터 辨證論治
- ③ 肝으로부터 辨證論治
- ④ 氣血로부터 辨證論治

보통 消渴病의 初期 혹은 급성으로 발작할 때에 대부분 燥熱傷陰이 위주이고 多飲, 多食, 多尿 등 전형적인 證候들이 나타난다. 消渴病이 오래 되면 脾胃氣虛로 표현되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瘡瘍癰疽, 가려움증, 口舌生瘡, 肺痿勞嗽, 白內障, 耳聾, 中風, 手足偏廢, 혹은 水腫, 嘔吐, 泄瀉, 不思飲食, 腹痛, 頭痛 등 증상이 나타난다.

2. 『金匱要略』의 消渴에 대한 논술이 후세에 미친 영향¹⁹⁾

① '渴'에 대한 설명:

『內經』중의 "消癉"이라는 病名을 사용하지 않고 『內經』에서 "消"만 중요시 하고 "渴"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 즉 "消渴", "小便頻數"등을 아주 중요시 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男子가 消渴病을 앓으면 소변은 오히려 더욱 많아져 물을 1斗 마시면 小便도 1斗이다. 腎氣丸으로 主治한다."²⁰⁾

"肺痿는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일어납니까?』하고 질문했던 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혹은 汗出에 의해 혹은 嘔吐에 의해, 혹은 消渴이 있어 小便을 자주 보는 것에 의해, 혹은 大便이 잘 나오지 않음에 의해, 또 下劑로 인해 下利를 함에 의해, 거들 津液이 亡失되어 肺痿가 되는 것이다.'"²¹⁾

"寸口脈이 浮하고 遲를 나타내는데, 浮는 虛證이고 遲는 勞한 것이다. 虛하게 된 것은 衛氣가 부족한 것이고, 勞한 것은 榮氣가 消耗되어 있다는 것이다. 趺陽脈이 浮하고 數한 때, 浮한 것은 氣가 성하다는 것이고, 數한 것은 음식물은 소화하기 쉽고 굳어지게 된다. 氣가 성하게 되면 소변이 잦게 되고 소변이 잦게 되면 또한 굳게 되는데 굳게 되는 것과 소변이 잦은 것이 消渴症을 만들게 된다."²²⁾

"입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져 물을 마셔도 渴症이 멈추지 않는 것은 文蛤散으로 主治한다."²³⁾

"입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입과 혀가 마른 환자는 白虎加人蔘湯으로 主治한다."²⁴⁾

② 病因病機方面:

消渴患者의 小便量이 많은 것으로부터 張仲景은 腎이 病機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파악하고 治法은 대부분 腎으로부터 着手하였다. 이것 또한 消渴의 원인이 內熱이 속에 맺힌 것으로 보고 上中焦에 초점을 둔 『內經』의 病機이론을 보충한 것이다.

③ 治療方面:

白虎加人蔘湯, 文蛤散 등의 처방은 후대에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腎氣丸의 조분 및 그 응용은 消渴治腎의 治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또한 補腎養陰하여 眞陽을 위로 쬐서 津液을 上昇시키어 中上의 焦燥를 구제 하는 腎氣丸 本方의 치료방법은 消渴後期에 腎陰虛로 인하여 腎陽虛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많이

數, 或從便難, 又被快藥下利, 重亡津液.'

19) 張伯衷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도, 564쪽, 중국
 『金匱要略』의 消渴에 대한 논술이 후세에 미친 영향은 『中醫內科學』에서 인용하였음
 20)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男子消渴, 小便反多, 以飲一斗, 小便一斗, 腎氣丸主之.'
 21)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20쪽, '肺痿之病, 從何得之? 師曰: 或從汗出, 或從嘔吐, 或從消渴小便利

22)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寸口脈浮而遲, 浮即爲虛, 遲即爲勞虛 則衛氣不足, 勞則榮氣竭. 趺陽脈浮而數, 浮即爲氣, 數即消穀而大堅, 氣盛則溲數, 溲數則堅, 堅數相搏, 即爲消渴'
 23)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2쪽, '渴欲飲水不止者, 文蛤散主之'
 24)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3쪽, '渴欲飲水, 口舌乾燥者, 白虎加人蔘湯主之'

활용되었다.

④ 이외에 『金匱要略』 중의 “勞則榮竭, 虛則衛氣不足”이라는 勞傷元氣의 病機는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3. 尤怡의 消渴論

尤怡는 張仲景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經方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證에 따라 加減하였다. 尤氏는 특히 先后天之本인 脾와 腎을 重視하면서 ‘治病必求其本’하였다. 尤怡는 많은 의학적을 참고하고 많은 醫學家들의 논설을 이용하여 『金匱翼』을 著述하여 『金匱要略』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다.²⁵⁾ 尤怡는 특히 臟腑辨證에 능하여 그 병의 歸屬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혔다.²⁶⁾

1) 『金匱要略心典·消渴篇』을 중심으로 한 고찰

尤怡는 消渴을 上消, 中消, 下消로 귀속시키고, 張仲景의 治腎爲主로 消渴을 치료하면서 사용한 腎氣丸의 처방원리를 분석하고 腎中陽氣와 上焦中焦 그리고 肺胃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同病異治와 異病同治는 『金匱要略』치료원칙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尤怡는 消渴의 증상중의 하나인 “渴欲飲水”에 대한 同病異治를 자세하게 辨別하였다.

(1) 辨證分型

消渴을 『金匱要略心典』에서는 太陰, 厥陰, 陽明, 少陰 등 4가지로 辨證分型하였다.²⁷⁾

① 太陰에 속하는 것은 心의 열이 肺로 轉移한 것이다.²⁸⁾

25) 關新軍 等, 尤怡臨證特色述要, 『江蘇中醫藥』2004년 제25권 제4기, 6쪽, 중국

26)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2000년, 968쪽, 중국

27)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按消渴證, 有太陰, 厥陰, 陽明, 少陰之異.’

28)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系太陰者, 心

② 厥陰에 속하는 것은 風勝則乾하니, 火가 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抑制한다.²⁹⁾

③ 陽明에 속하는 것은 火는 타고르면서 土를 마르게 한 것이다.³⁰⁾

④ 少陰에 속하는 것은 水가 虛하여 火를 制할 수 없는 것이다.³¹⁾

(2) 臟腑歸屬

臟腑辨證에 능한 尤怡는 『金匱要略心典』에서 消渴의 臟腑歸屬을 명확하게 밝혔다.

消渴病機.-虛勞內熱³²⁾

① 上消, 膈消-肺熱盛傷津³³⁾

② 中消-胃火盛³⁴⁾

③ 下消-腎氣虛하여 脾胃에서 생성된 精氣를 心肺로 올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³⁵⁾

熱移肺也

29)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厥陰者, 風勝則乾, 抑火從木出也’

30)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系陽明者, 火燔而土燥也’

31)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系少陰者, 水虛不能制火也’

32)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寸口脈을 짚어보고 榮氣와 衛氣가 모두 虛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跌陽脈을 짚어보고 胃氣가 홀로 盛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쳐서 살펴볼진대 虛勞內熱로 인하여 消渴症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診寸口而知榮衛之并虛, 診跌陽而知胃氣之獨盛. 合而觀之, 知爲虛勞內熱而成消渴也)

33)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3쪽, ‘이는 肺와 胃의 열이 盛하여 津液을 상한 것이므로 白虎湯으로 淸熱하고 人參으로 生津止渴한다. 이른바 上消, 膈消의 病證으로서 이 자리에 錯簡된 듯싶다.’ (此肺胃熱盛傷津, 故以白虎淸熱, 人參生津止渴. 蓋即所謂上消膈消之證, 疑亦錯簡於此也)

34)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2쪽, ‘胃中有熱, 消穀引飲’은 바로 뒤에 있는 ‘消穀善飢’와 같은 뜻인데, 바로 中消를 일컫어 말하는 것이다. 胃에 열이 있으면 액체가 마르게 되어 변이 굳어지고 변이 굳어지면 水液이 홀로 前陰쪽으로 나오므로 소변이 잦게 된다. (胃中有熱, 消穀引飲, 卽後所謂消穀善飢, 爲中消者是也. 胃熱則液乾, 故大便堅, 便堅則水液獨走前陰, 故小便數)

35)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141쪽, ‘남자는 腎으로 用事하는데, …… 腎氣丸에 있는 桂枝, 附子가 바로

(3) 腎氣丸을 重視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尤怡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자는 腎으로 用事하는데, 腎속에 氣가 있어 氣化를 主管하고 津液을 運行시켜 心과 肺를 적셔준다. 그러므로 氣가 虛하게 되면 위로 올라올 수 없고, 氣가 이르지 아니하면 水 또한 올라오지 않으므로 心肺가 그 윤택함을 잃게 된다. 대저 水液은 음에 속하고 氣가 아니고는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없다. 기는 비록 양에 속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水를 포함하고 있는데 水는 氣와 더불어 같이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腎氣丸에 있는 桂枝, 附子가 바로 腎에 있는 쇠퇴한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여 心肺쪽으로 上行하게 하니 그러므로 이름을 腎氣라고 지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 滋陰潤燥하는 약만으로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아래 쪽으로 흘러갈 따름이다. 병이 진행되어 陽氣가 모두 없다면 내려가는 것만 있고 上升시키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를 마시면 소변으로 물이 나가게 되어 치료할 수 없게 된다. 음식물이 胃로 들어가서 腎에 있는 眞陽을 얻지 못하면 어찌 精氣를 들게 하고 넘치게 하여 위에 있는 脾와 肺에 전달시킬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腎속에 있는 陽氣와 上焦, 中焦 肺胃사이의 관계, 그리고 腎氣丸에서 附子, 桂枝가 사용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4) 同病異治의 例

“渴欲飲水”에 관한 조문이 消渴編에 모두 5개가 있다. 그러나 맥이 浮하고 發熱하며 小

腎에 있는 쇠퇴한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여 心肺쪽으로 上行하게 하니 …… 음식물이 胃로 들어가서 腎에 있는 眞陽을 얻지 못하면 어찌 精氣를 들게 하고 넘치게 하여 위에 있는 脾와 肺에 전달시킬 수 있겠는가? (男子以腎用事 …… 腎氣丸中有桂, 附, 所以 滲旋腎中頽陷之氣, 而使上行心肺之分, …… 夫豈知 飲入於胃, 非得腎中眞陽, 焉能游溢精氣, 而上輸脾肺耶.)

便不利한 환자에게 하나는 五苓散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水와 熱이 맺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豬苓湯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水와 熱이 맺히고 게다가 陰氣가 재차 상했기 때문이다.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하는 환자에게도 五苓散을 사용하는 것은 열이 가졌지만 水가 停滯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증이 멈추지 않는 환자에게는 文蛤散을 사용하는데 水가 없어지고 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입이 마르는 환자에게는 白虎加人參湯을 사용하는데 열이 심하여 津液을 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同源而異한 것으로 각각 치료를 달리한 것이다.

2) 『金匱翼·消渴』을 중심으로 한 고찰

(1) 消渴에 대한 分類 및 症狀

『金匱翼』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첫 번째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오줌이 잦고 그 맛이 달며 밀기울 부스러기 비슷한 기름기가 섞여나가는 것은 消渴이다.³⁶⁾
- ② 둘째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갈증은 심하지 않고 오줌의 양은 적은데 기름 같은 오줌을 자주 누는 것은 消中이다.³⁷⁾
- ③ 셋째로 갈증이 심하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서 허벅다리가 먼저 붓고 여위며 음부가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오줌이 잦은 것이 腎消이다.³⁸⁾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消渴에 대한 구절은 唐代 甄權이 저술한 『古今彙驗方』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당뇨병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文字기록이다. 양방에

36)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41쪽, ‘渴而飲水多, 小便數, 有脂如麩片, 晝者是消渴也’

37)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41쪽, ‘吃食多, 不甚渴, 小便少, 似有油而數者, 是消中也’

38)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41쪽, ‘渴飲水不能多, 但腿腫脚先瘦小, 陰痿弱, 數小便者, 是腎消也’

서는 1675년 영국의사 Thomas Willis에 의하여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방에서 기록된 것에 비하면 천년 남짓 지난 뒤였다.³⁹⁾ 또한 消渴, 消中, 腎消로 최초로 분류한 著書로는 『太平聖惠方』이다⁴⁰⁾. 최초로 ‘三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증상은 이와 다르고 尤怡가 인용한 이 조문은 『醫方類聚 卷之一百二十四 消渴門一 澹察方 消渴』⁴¹⁾에 있는데, 이는 金元시대 의가들이 많이 인용한 辨證방법이다.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당뇨병의 특징은 고혈당과 尿酸인데 임상에서는 三多症(多飲, 多食, 多尿)과 함께 피로와 困倦가 나타나고 몸이 수척해진다. 위의 분류방법으로부터 볼 수 있는바 尤怡가 분류한 消渴病은 현대 당뇨병의 증상과 거의 인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消渴症狀로부터 雜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消渴 禁忌事項

첫 번째로는 飲酒, 둘째로는 성생활, 셋째로는 짠 음식과 면 종류.

이 세 가지를 삼가는 사람은 비록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다른 증상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金丹같은 것을 먹어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⁴²⁾

이 문장은 唐代 孫思邈이 저술한 『備急千金要方 卷第二十一 消渴第一』⁴³⁾에서 인용한 것으로 孫思邈은 燥熱學說을 제창하면서, “小便

多於所飲”의 기전은 內熱消穀이라고 보고, 飲食을 控制하는 것이 치료의 우선순위라고 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꼭 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孫思邈의 學說은 지금까지도 糖尿病의 豫防과 治療에 指導작용을 하고 있다. 尤怡는 바로 孫思邈의 이러한 의학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3) 小便에서 단맛이 나는 이유와 八味腎氣丸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⁴⁴⁾

『洪範』에는 ‘곡식으로 단 것을 만든 다고 하였는데 이치로 생각해 본다면 엿, 초, 술, 식혜를 만들 때에 버무려서 한참 두면 다 달게 된다. 이것과 같이 사람이 먹은 음식도 다 달게 되어 방광으로 흘러가는데 만일 腎의 기운이 성하면 이것이 眞火로 되어 脾胃를 덥히기 때문에 음식을 삭여서 물과 찌꺼기를 나누어 대변과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精氣는 골수로 가고 또 榮衛와 어울려 혈액으로 가서 몸을 영양한다. 다음은 기름이 되고 다음은 피와 살이 되며 나머지는 오줌이 되는데 오줌은 피의 나머지이므로 누런빛을 띤다. 그리고 비린 것은 5장의 기운이며 짜고 누기는 것은 내려가는 맛이다. 그런데 이미 腎이 허하고 차면 음식에 더운 김을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가서 오줌이 되므로 단맛도 변하지 않으며 오줌이 맑고 서늘하며 살이 빠지는데 마치 짓먹이어머니가 음식을 먹으면 그 기

44)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41쪽, ‘按『洪範』云:稼穡作甘。以理推之, 淋錫酒作脯法, 須臾即皆能恬也。人飲食之後, 滋味皆恬, 積在中焦, 若腰腎氣盛, 則上蒸精氣, 化入骨髓, 其次爲脂膏, 其次爲肌肉, 其餘則爲小便。氣脈, 五臟之氣; 味咸者, 潤下之味也。若腰腎虛冷, 不能蒸化於上, 穀氣則盡下而爲小便。故甘味不變, 下多不止, 飲食雖多而肌膚枯槁。譬如乳母, 穀氣上泄, 皆爲乳汁。消渴疾者, 穀氣下泄, 盡爲小便也。又肺爲五臟之華蓋, 若下有暖氣上蒸, 則潤而不渴; 若下虛極, 則陽氣不能昇, 故肺乾而渴。譬如釜中有水, 以板蓋之, 若下有火力, 則暖氣上騰板能潤; 若無火力, 則水氣不能上, 板終不可得而潤也。故張仲景云: 宜服八味腎氣丸, 并不可食冷物, 又飲冷水, 此頗得效, 故象正方於後云.’

39)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 2002년, 5쪽, 중국

40)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叢萃』, 重慶出版社, 465쪽, 중국

41)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叢萃』, 重慶出版社, 465쪽, 중국

42)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41쪽, ‘消渴大禁有三, 一飲酒, 二房室, 三咸食及麵, 能慎此者, 雖不服藥, 自可無他, 不知此者, 縱有金丹, 亦不可救, 慎之, 慎之.’

43)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叢萃』, 重慶出版社, 468쪽, 중국

운이 위로 올라가서 모두 젖어 되는 것과 같다. 消渴病을 앓는 사람은 음식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서 오줌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속의 精氣가 든든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줌이 잦고 몸이 여위며 허약해진다.45)

또한 肺는 五臟의 덮개이므로 아래의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 폐가 녹록해지지만 아래가 몹시 차서 陽氣가 오르지 못하면 肺가 말라 갈증이 생긴다. 비유해 말하면 가마에 물을 불로서 따뜻하게 한 다음 뚜껑을 덮으면 김이 올라가서 뚜껑이 젖지만 만일 불로서 덜히주지 않으면 뚜껑이 계속 마른대로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불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이 굳세고 실한 것을 말한다. 腎氣를 늘 따뜻하게 보하면 먹은 음식이 열의 기운을 만나게 되어 쉽게 삭으면서 위를 잘 녹여주고 또한 消渴病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張仲景은 마땅히 八味腎氣丸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찬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고 또한 냉수를 마시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다.46)

“腎氣를 늘 따뜻하게 補하면 먹은 음식이 열의 기운을 만나게 되어 쉽게 삭으면서 위를 잘 녹여주고 또한 消渴病도 생기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治腎위주의 치료원칙을 披瀝하였고, 脾와 腎을 重視하면서 ‘治病必求其本’하는 그의 의학사상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4) 『金匱翼·消渴』에 記載된 처방들

尤怡는 많은 의학자들의 消渴치료처방을 참고로 하여 『金匱翼』에 消渴과 兼證에 대한 치료처방을 기록하였다.47) 『金匱翼』에서의 處方例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東洋醫學研究會 발행, 『宋板外臺秘要』, 東洋印刷製本株式會社, 1981년, 207쪽, 일본
46)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叢』, 重慶出版社, 1988년, 468쪽, 중국
47)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도, 241쪽,

① 八味腎氣丸
熟地黃八兩, 萸肉 山藥 各四兩, 牡丹皮 建澤瀉 白茯苓 各三兩, 附子制 肉桂 各一兩48)

② 療消渴, 口苦舌乾方
麥門冬 五兩, 花粉三兩, 烏梅 十箇, 去核 小麥 三合, 茅根, 竹茹 各一兩

③ 療飲水不消, 小便中如脂方
黃連 括蕒根 各五兩

④ 麥冬飲子
人蔘 茯神 麥冬 知母 五味子 生地 生甘草 葛根 括蕒根

⑤ 麥冬丸
麥冬 茯苓 黃芩 石膏 玉竹 各八分, 人蔘 龍膽草 各六分, 升麻四分, 枳實五分, 生薑 括蕒根 各十分, 枸杞根

⑥ 葶藶丸
葶藶隔紙炒 瓜蕒根 杏仁麩炒黃 漢防己 各一兩

⑦ 白朮散
乾葛二兩 白朮 人蔘 茯苓 炙草 藿香 木香 各一兩

⑧ 豬肚丸
豬肚一具, 洗淨 黃連 白梁米各五兩 花粉 茯神 各四兩 知母三兩 麥冬二兩

『金匱翼』에서 尤怡가 인용한 조문들을 살펴보면 그는 주로 唐宋時期的 孫思邈, 王濤, 甄權, 許叔微, 元代的 曾世榮 등의 의학적을 참고하여, 三消로 분류를 하고, 금기사항을 기재하고, 治腎위주의 치법을 강조하였다.

III. 考 察

(1) 病因病機方面

病機를 주로 虛勞內熱이라고 보고 있다. 『金匱要略心典·消渴篇』에서 尤怡는 太陰, 厥陰,

48) 孫中堂主編, 『尤在涇醫學全書』222쪽

陽明, 少陰 등 4가지로 나누어서 消渴의 병리 기전을 설명하였는데, 太陰은 心熱移肺, 厥陰은 風勝則乾, 抑火從木出, 陽明은 火燔而土燥, 少陰은 水虛不能制火라고 밝혔다. 『中醫內科學』⁴⁹⁾에서는 消渴의 臟腑病機를 上焦-火刑肺燥; 中焦-胃受火燥, 虛熱內亢; 下焦-腎元虛耗, 水火失調라고 종합하고 있는데, 尤怡가 말하고 있는 消渴의 분류를 『中醫內科學』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면, 太陰消渴은 上焦, 陽明消渴은 中焦, 少陰消渴은 下焦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厥陰부분은 해당한 부분이 없는데, 厥陰 즉 肝으로 인한 消渴은 역대 의학자들이 논술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의학자들이 임상경험을 통하여 肝이 消渴에 重要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⁵⁰⁾ 이는 尤怡가 많은 임상경험을 통하여 消渴의 病機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辨證方面

『金匱要略心典·消渴篇』에서는 消渴의 臟腑歸屬을 명확하게 밝혔다.

上消, 膈消-肺胃熱盛傷津-渴欲飲水, 口乾燥
中消-胃中有熱-消穀引飲, 大便堅, 小便數
下消-腎虛不能制火

『中醫內科學』⁵¹⁾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분류를 하였는데, 尤怡가 분류한 것이 이미 消渴의 변증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金匱翼·消渴』에서는 元代 曾世榮이 저술한 『澹寮方』중의 내용을 인용하여 消渴, 消中, 腎消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尤怡는 이와 같이 消渴을 넓은 범주의 病名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消渴分類중의 하나로써 좁은 의미로도 사

용하였다. 이와 똑 같은 병명으로 최초로 분류한 것은 『太平聖惠方』이다. 이와 같이 北宋時代에는 이런 분류방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정식으로 上消, 中消, 下消 이름을 사용한 것은 『丹溪心法』이다. 그러나 尤怡는 元代로부터 이미 사용한 上消, 中消, 下消로 분류하지 않고 北宋시기의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의학자들이 이러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古今氣驗方』에서 발췌한 消渴에 대한 증상 중 소변이 달다는 기록은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당뇨병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文字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있고 또 消渴, 消中, 腎消의 증상들을 살펴볼 때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糖尿病의 三多症(多飲, 多食, 多尿)과 거의 인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治療方面

『金匱要略心典·消渴篇』에서는 주로 『金匱要略』의 취지를 떠받들면서 처방도 『金匱要略』에 적힌 그대로를 사용하였다. 白虎加人蔘湯, 文蛤散, 腎氣丸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溫補之劑인 腎氣丸이 무엇 때문에 虛熱로 인한 消渴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溫補之劑인 腎氣丸이 腎에 있는 眞陽을 키우고 복돋아 주어 脾胃로 들어온 穀氣가 脾와 肺에 전달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腎中 陽氣와 上焦, 下焦 및 肺와 胃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腎속에 氣가 있어 氣化를 主管하고 津液을 運行시키며 心과 肺를 적셔준다. 이러한 氣가 虛하게 되면 위로 올라올 수 없고, 氣가 이르지 아니하면 水 또한 올라오지 않으므로 心肺가 그 유효함을 잃게 된다. 대저 水液은 음에 속하고 氣가 아니고는 원하는 곳에 이를 수 없다. 기는 비록 양에 속하지만 그 속에 사실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水는 氣와 더불어 같이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腎氣丸에서 附子, 桂枝를 사용한 목적에

49)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570-571쪽, 중국

50)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 2002년, 8쪽

51)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575쪽

대하여서는 '桂枝, 附子'가 바로 腎에 있는 쇠퇴한 기운을 솟아오르게 하여 心肺쪽으로 上行하게 하니 그러므로 이름을 腎氣라고 지은 것이다. 그렇지 않고 滋陰潤燥하는 약만으로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아래쪽으로 흘러갈 따름이다, 나중에 陽氣가 모두 없어지게 길들어져 내려가는 것만 있고 上升하는 것이 없으므로 하나를 마시면 소변으로 들이 나가게 되어 치료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서술하였다. 『金匱翼·消渴』에서도 『外臺秘要』와 『普劑本事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腎虛하여 瀰脾胃할 수 없는 것이 消渴病의 주된 병리기전을 강조하고 腎氣丸을 사용한다고 되어있다.

消渴에 대하여 많은 현대 의학자들은 消渴의 주된 원인이 腎虛에 있으니 腎虛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학설의 시작은 『金匱要略』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²⁾. 尤怡는 특히 腎虛에 대하여 중요시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腎氣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腎氣丸외에 『金匱翼·消渴』에서는 消渴, 口苦舌乾方, 飲水不消, 小便中如脂方, 麥冬飲子, 麥冬飲, 정력환, 白朮散, 豬肚丸 등 치료처방이 나열되어 있다.

(4) 兼證治療方面

① 大癰:

尤怡는 『備急千金要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消渴환자는 癰證이 걸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보고 두개의 처방을 제시하였다.⁵³⁾

② 水病浮腫

葶藶丸

消渴病의 兼證은 현대 糖尿病의 합병증과

유사한데, 糖尿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中醫內科學』⁵⁴⁾에서는 癰疽, 腫脹, 耳聾, 雀盲 등 네 가지를 疔瘡하고 있는데, 尤怡는 이 중에서 2가지에 대하여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

(5) 禁忌方面

『金匱翼·消渴』에 飲酒, 房室, 咸食 및 麵 등 4가지를 금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備急千金要方』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中醫內科學』에서는 이 금기사항이 실천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⁵⁵⁾

(6) 其他

『金匱要略』에서 同病異治와 異病同治가 중요한 治法중의 하나인데 尤怡는 '渴欲飲水'에 대하여 同病異治의 治法을 설명하였다.

IV. 結 論

『金匱要略心典·消渴篇』과 『金匱翼·消渴』에서 消渴에 대한 尤怡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消渴의 病機는 虛勞內熱로 보고 있고, 太陰, 厥陰, 陽明, 少陰 등 4가지로 나누어서 각 유형의 臟腑歸屬을 분명히 하였다. 그 중 厥陰에 대한 기록은 肝 또한 消渴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2. 辨證에 있어서 上消, 中消, 下消에 대하여 각각의 장부귀속을 밝혔으며, 消渴, 消中, 腎消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세 가지 증상들

52) 單書健 等主編, 『古今名醫臨證金鑑 消渴卷』,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쪽, 중국

53)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242쪽, 중국

54)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585-586쪽

55) 張伯臾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587쪽

- 을 살펴보면 이미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糖尿病의 三多증상과 거의 유사하다.
3. 治療에 있어서 溫補之劑인 腎氣丸이 무엇 때문에 虛熱로 인한 消渴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원인 및 腎中 陽氣와 上焦, 下焦 및 肺와 胃의 상관관계, 腎氣丸에서 附子, 桂枝를 사용한 목적에 대하여 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하여 후대 의학자들이 腎氣丸을 사용하는데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4. 消渴의 兼證 즉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糖尿病의 合併症과 유사한 병증에 대하여 癰疽와 浮腫 두 가지를 지적하고 처방을 기재하고 있다.
 5. 『備急千金要』의 문장을 인용하여 飲酒, 房室, 咸食 및 麵등을 금할 것을 강조하였다.
 6. 不足點 尤怡는 清代에 이미 消渴의 病因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病因에 대하여 논술한 것이 거의 없다. 治法에 대해서는 補腎위주의 처방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치료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金匱翼·消渴』에 여러 가지 처방을 기재하였지만, 현재 消渴病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주고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癰疽와 水腫 2가지밖에 서술하지 않았다.
- 2002년
 5. 黃自立 編, 『中醫百家醫論叢萃』, 重慶出版社, 1988년
 6. 東洋醫學硏究會 발행, 『宋板外臺秘要』, 東洋印刷製本株式會社, 1981년
 7.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2000년
 8. 關新軍 等, 尤怡臨證特色述要, 『江蘇中醫藥』 2004년 제25권 제4기
 9. 石鶴峰 等著, 消渴病病機證治源流探微, 中醫研究, 2004년6월 제17권
 10. 尤怡 著, 『金匱翼』,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11. 안연추 등, 尤怡學術思想探討, 『光明中醫雜誌』1996년 제 6기 3쪽
 12. 裘沛然 等編, 『中醫各家學說』, 人民衛生出版社, 1992년
 13.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팀 엮음, 『알기 쉽게 풀이한 당뇨병』, 태웅출판사, 2004년

參考文獻

1.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2. 張伯輿 主編, 『中醫內科學』, 人民衛生出版社, 1988년
3. 單書健 等主編, 『古今名醫臨證金鑒 消渴卷』,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년
4. 范冠杰 主編, 『糖尿病』, 人民衛生出版社,